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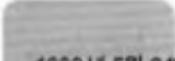


인터뷰 1

황민호

전국의료보험관리공단노조위원장

정리 :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1999년 5월 24일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찾아간 마포의 의보노조 사무실은 다음날 일박한 파업준비로 어수선했다. 지난 4월 2일 전조합원이 참가한 투표를 통해 황민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새 집행부가 출범했고,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선 대응과 공공연맹 차원의 투쟁으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공공부문의 주력사업장 가운데 하나이자 이번 지하철 투쟁을 열심히 업호·지원했던 전국의료보험관리공단노동조합 황민호 위원장을 만났다.

윤효원 : 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포부와 임기 중 이루시고 싶은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호 : 이전 집행부인 3대 때 조직이 내분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노조의

정체력과 집행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선거를 해 현집행부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조직의 통합과 단결에 주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등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보다 공

세적이고 적극적인 노조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통합과 공공산별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윤: 지금 현장과 조합원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황: 정부의 의료보험료 인상 방침에 따른 업무 폭증과 민원 증가로 노동강도가 많이 커졌습니다. 여기다가 직장의보와의 통합 문제로 고용문제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4대 집행부 출범 이후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율도 높고, 노조에 대한 참여와 신뢰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윤: 노조가 당면한 현안문제는 무엇입니까?

황: 내부적인 현안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문제입니다. 지난 선거 때 절대 타의에 의한 정리해고는 없을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고용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노조 입장은 현안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통합이 완성되면 현재의 인원으로 대국민서비스를 감당하기에는 벅칩니다. 인력조정 문제는 단기적인 성과 위주가 아

닌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대국민서비스 강화라는 보다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망에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획예산위원회가 주도하는 -4.5% 임금가이드 라인 분쇄입니다. 노조는 임금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일직종 동일임금' 쟁취입니다. 작년 10월 1일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외보공단과 지역의보공단이 통합하여 전국의보공단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양자간의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일시키자는 것이지요. 넷째,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합니다. 다섯째, 퇴직금중간정산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조의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니다. 여섯째, 노사협상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쟁점이 생겨 사용자와 협상하다보면, 자기들한테는 결정권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정부는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을 보장해야 합니다.

윤: 그럼 외부 현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황: 지금 전체 의료보험 예산의 25% 수준인 국가의 재정지원을 50%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태우 정권 때부터 정부가 한다고 하면서 미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병원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진료비 부당청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공단의 추측으로는 약 1조 원 정도가 부당하게 병원의 농간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윤: 의보노조는 민주노총의 가맹조직인 반면, 직장의보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등 다른 사회보험 관련노조들은 한국노총에 가맹되어 있습니다. 이들 노조들간에 사회보험 제도 개선의 방향이나 정책에서 견해 차이가 있는 듯한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황: 이들 노조, 특히 직장의보노조는 반개혁세력입니다. 4대보험 통합은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분리 운영되던 4개의 공단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중복업무와 기능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며, 업무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직장의보노조가 4대보험 통합을 가로막기 위해 한나라당 집회까지 쫓아 다니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집단이 기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권익과 더불어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

각해야 합니다. 4대보험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이들 노조의 행태이고, 우리 노조는 4대보험통합을 절대 지지합니다.

윤: 4대보험 통합이 고용불안을 가져온다는 게 이들 노조의 주장인데요?

황: 4대보험 통합은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의 인력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고 개선된 사회보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상태에서 낭비와 비능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과 인력조정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 지난 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보공단(공교)과 지역의보공단이 통합되었지만, 양 조직의 노동조합은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보통합에 따른 노동조합 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황: 현재로서 통합 조직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양 조직의 정서와 의식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공교 쪽은



“4대보험 통합이 완성되면 현재의 인원으로 대국민서비스를 감당하기에는 벅잡니다. 인력조정 문제는 단기적인 성과 위주가 아닌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대국민서비스 강화라는 보다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망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보보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좋습니다. 이런 점도 조직 통합의 장애 요인입니다. 우선 집행부 사이에 통합기구를 만들고, 조합원들간의 교류를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2000년 1월에는 직장의보와도 통합이 되는데 이를 대비해서라도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겠지요.

문: 올 상반기 지하철노조를 선두로 공공연맹 차원의 투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투쟁과정에 의보노조는 어떻게 결합했습니까?

황: 이번 투쟁 과정에 의보노조는 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파업을 전후한 여러 집회에서 의보노조가 주력을 형성했다고 봅니다. 지하철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의보노조는 공공연맹은 물론 민주노총 차원의 집회에서도 주력을 형성했습니다. 4월 26일 지하철노조가 파업 종료를 선언하고 그날 저녁 연맹 대표자회의가 열렸을 때, 지하철 파업 종료에 맞춰 연맹 차원의 투쟁을 종료하지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투쟁의 시작이 있듯이 끝도 있어야 하며, 시작을 잘 해야 하듯 마무리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맹 차원의 투쟁 마무리를 제안했고,



66 민주노조운동의 강점이었던 현장성과 투쟁성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인맥중심의 노동운동이 아남과 노선을 둘러싼 협력과 경쟁, 그리고 대안과 정책을 중시하는 노동운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99

그렇게 해서 조직된 4월 28일 파업에 의보노조도 힘차게 함께 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번 투쟁에 대한 평가는 어때습니까?

홍: 이번 지하철 파업이 선봉적이고 영웅적인 투쟁이었다는 평가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맹 차원에서 전선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산별연맹들간의 투쟁 시기 집중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통일된 투쟁전선이 이뤄지지 못한데는 투쟁역량과 경쟁에서 연맹내 산하조직들간의 편차

가 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몇몇 대사업장만의 투쟁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셈이지요, 산발적이고 고립된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지도역량에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나 연맹 차원의 교섭력과 정치적 부족 문제가 이런 한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봅니다.

문: 위의 질문과 관련된 평가를 바탕으로 할 때, 하반기 전체 노동조합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 글썽요, 먼 이야기 같지만 노동운동의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젊은 세

대가 노동운동에서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노동운동의 젊은 피 수혈론이라고나 할까요.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은 대안과 정책을 수립하고 제시하는데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봅니다. 1987년 이후 민주노조 운동진영은 저항과 투쟁은 잘 조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강점이었던 현장성과 투쟁성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인맥중심의 노동운동이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협력과 경쟁, 그리고 대안과 정책을 중시하는 노동운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성과 투쟁성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조합원이 주인된 운동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된 간부, 교육받은 활동가, 검증된 운동

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남아프리카의 COSATU가 낸 『셴템버보고서』는 여러모로 생각할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 나라 노동운동에도 『셴템버보고서』와 같은 문제의식이 필요 합니다.

윤: 끝으로 『노동사회』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저도 독자입니다. 『노동사회』를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현장에도 많이 전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동사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동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윤: 파업준비로 분초가 부족한 때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